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최초
암치료의 혁명
최첨단 방사선 치료장비 도입

RapidArc





2010. 01+02

CONTENTS

Jan. Feb Vol. 79

04	신년사	풍성한 한 해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날
06	행복을 전하는 글	열어 보지 않은 선물
07	Well-being Report	새해를 여는 하얀색 대표 음식, 떡국
10	장비소개	최첨단 방사선치료 장비 래피드아크
12	의학정보 1	과민성 대장증후군
14	의학정보 2	'언어'와 '걸음걸이' - 입학 전 챙기세요!!
16	건강책갈피	담배 연기의 미학과 그 비참한 몰락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직'과 '헌신'이라는 2가지 원칙 지키는 의사로!
20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
22	글이 머무는 풍경	저를 스쳐간 많은 환자분들에게 우리 직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청송예찬
27	감사의 글	우리는 한가족
28	사회복지 소식	우리 병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29	특약약물상담	금연 보조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30	병원시설 안내	환자뿐 아니라 고객을 위한 쾌적한 공간
31	의료인을 위한 특화검진	원장님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 드립니다!!
32	특수수탁 검사안내	인하대병원 특수 수탁검사 의뢰 시스템 실시
33	동문탐방	중동메디칼의원
34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인사동정
	알립니다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입과 안내 / 파랑새 소식 Global Inha / 퀴즈 퀴즈 제52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풍성한 결실을 이어내는
풍성한 한 해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날



사랑하는 글로벌 인하기족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을 의미하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인하기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자신만만한 여러분의 열정과 글로벌 인하대병원에 대한 자긍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금융위기와 신종플루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인하기족 여러분이 병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개원 이래 외래환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하기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성격상 비행기는 역풍이 불어와야 take off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역경이라 할 수 있는 역풍에 오히려 비상(飛翔)하는 잠재적 역량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인근 병원의 암센터 신축 개원과 건강보험 수가 1.4%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적으로는 JCI 인증 획득과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래피드마크'를 가동함으로써 암 치료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며, 편의시설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외적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교

직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추진하는 중점전략에 대한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을 통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9년 JCI인증 선포식을 한 후 1년 반 만에 우리는 Global Standard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금년 6월경이면 국내 최고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가장 안전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추진할 모든 업무과정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개선하고, 잘 하고 있는 부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뉴얼화하여 환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진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류마티즘센터와 폐암센터 개소에 이어 올해도 특성화 전문센터 육성 및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진료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기중심의 암 협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 성장 동력인 Global Healthcare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국제진료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영종메디컬센터 건립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연구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전문병원은 연구중심 병원으로 나아가야 하며, 연구중심 병원으로 차별화되었을 때 차등 수가 및 세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병원은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추어 연구중심 병원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지난 11월에 FERCAP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사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임상시험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알레르 기질환 환경보건센터와 유타-인하 DDS 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HT(Health Technology) 고속화 대책 연구 사업 의료기관으로 우리병원 이 선정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이 되고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지역 주민들 중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수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병원이 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선진료와 구호활동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인하기족 여러분이 자진 참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인하기족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로 가꿔낼 수 있다”라는 청기조칸의 말을 우리의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하기족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온 성과를 뛰어 넘는 새로운 도약을 열어갈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메디포트, JCI인증 획득, 진료역량 강화, 연구중심병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올해에도 풍성한 결실들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날이라는 다짐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년 새해에는 인하기족 모두가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을 새해 아침처럼 살려는 마음으로 맞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해 아침

의무부총장 겸 인하의료원장 이 두 익



열어 보지 않은 선물

- 부름과 대답이 있는 삶 에서 -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하루는
‘열어 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 하나 그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손끝이, 발걸음이 그것을 좋아하면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 느끼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이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당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 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 하루, 그것은 당신에게 스스로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 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고 긴 건 순수와 장수, 풍요바라는 동그란 엽전 모양 새해를 여는 하얀색 대표 음식, 떡국

새해를 처음 여는 날,
재산이 '쫄쫄' 늘어나라는 축복의 의미로 가래떡을 길게 뽑았고, 이 가래떡을 옛날 화폐인 엽전의 모양처럼 둥글게 썰어
새해에는 풍족해 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하얗고 뽀얀 국물로 끓인 떡국으로 새해 첫 아침을 연다.
설날의 떡국은 밝음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 음식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새해를 여는 첫 음식이자 설음식에 단연 으뜸인 떡국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양고 보얀 국물에 엽전모양 떡국의 의미, 최근에는 컬러 떡국

설날에 먹는 떡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떡국은 밝음과 깨끗함, 그리고 처음을 나타낸다. 떡국 떡으로 썰어지는 가래떡이 희고 긴 것은 순수한 장수를 의미한다. 가래떡을 둥글게 써는 이유는 둥근모양이 마치 옛날 화폐인 엽전의 모양과 같아 새해에 재화가 풍족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나이를 먹는 떡이라는 뜻으로 '참세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 "떡국 몇 그릇을 먹었느냐"고 묻기도 했고 연로한 어르신들은 늙는 게 싫어서 떡국을 먹고 싶지 않다고 엄살(?)을 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던 과거 시절, 명절만큼은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설렘으로 기다리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명절은 풍성한 날로 기억된다. 설날 그 풍성함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인 떡국, 하양고 뽕양게 새롭게 태어나라고, 또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 해 묵은 때를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떡국은 하얀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분홍색, 녹색, 노란색, 검은색 등 마치 예술품처럼 보이는 컬러 오색떡국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오색 가래떡은 인공색소가 아닌 채소나 약재에서 얻은 천연색을 활용한다. 분홍색은 당근이나 오미자, 선인장 열매인 백년초, 녹색은 쑥, 노란색은 파프리카, 검은색은 흑미에서 추출해 건강에도 좋다. 여기에 자색 양배추나 고구마 가루를 넣어 색깔을 내기도 한다.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건강도 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가지 색을 보유한 '오색발아현미'를 이용한 새로운 오색 가래떡이 개발, 판매되고 있어 기능성까지 향상시킨 건강떡국으로 설날 음식문화도 변화되고 있다.

새해를 여는 세계의 음식 풍습 - 건강·행운 기원 풍속

국가 별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해 첫날에 먹는 음식도 다양하다. 각 국가별로 시작하는 의미를 담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해 운수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다. 새해 소원을 담아 세계 각국마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여 다 함께 먹는 새해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일본 - 새해가 되면 '오세치'라 불리는 도시락을 먹는다. 오세치는 우엉, 연근, 새우, 다시마, 검은콩, 무 등을 국물 없이 달짝지근하게 조리한 음식으로 각 재료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우는 장수, 검은콩은 노력, 다시마는 행운을 뜻하며 연근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탈리아 - 녹두를 넣어 요리한 음식과 발톱까지 보이는 돼지 족발 요리가 새해맞이 음식이다. 이탈리아인들은 땅을 굽지 않는 돼지를 먹으면 한해가 풍요롭고 부자로 잘 산다고 믿는다.

멕시코 - 멕시코에서는 새해 풍습으로 포도 12알을 먹는 풍습이 있다. 12알은 1년 열 두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알 한 알의 포도를 먹으면서 새해 소원을 빈다. 멕시코에서는 새해 풍습으로 포도 12알을 먹는 풍습이 있다.

베트남 - 베트남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 설날 음식으로 우리가 떡국을 끓여 먹듯 찹쌀떡 안에 녹두와 돼지고기를 넣어 네모나게 만든 '빈쯔'를 만들어 바나나 잎으로 하나씩 포장해 두었다가, 새해 첫날 손님에게 대접한다. 또 집집마다 수박을 준비했다가, 잘랐을 때 빨강게 잘 익었으면 복이 온다고 믿는다.

중국 - 중국의 새해 음식은 '딴섬'이다. 복을 한 입에 쏘~옥 넣는다는 의미이다. 새해의 소망을 만두소의 재료로 넣어 딴섬으로 먹어버린다. 또 중국의 새해 음식이 만두인 이유는 만두피를 서로 맞붙이게 되는데 이



것은 입을 막는다는 의미요, 곧 모든 나쁜 일을 미리 없앤다는 의미와도 통한다고 생각한다.

떡국 칼로리의 진실과 다이어트 걱정 없는 떡국 먹기

언제부터인가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이제 명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을까? 그동안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을까가 또 걱정이다. 배를 주리던 시절이야 간만에 눈앞에 펼쳐진 먹을거리를 정신없이 먹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풍족한 먹을거리로 잘 알고 골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웰빙 시대에 맞춰 떡국 육수도 꼭 고깃국으로 한정지를 필요는 없다. 겨울철 별미 중의 하나인 매생이를 넣어 끓인 매생이 떡국, 갖은 해물과 무 등을 넣고 녹차 떡을 넣은 '해물녹차떡국', 굴을 넣은 '굴떡국', 다시마, 무, 멸치, 파 등을 끓여 우려낸 아채육수로 만든 웰빙 떡국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이는 것 마다 맛있어 보이는 설음식, 특히 설음식에 빠지지 않는 '떡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떡국의 영양과 기능성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먹는 즐거움과 칼로리 걱정 없이 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떡국의 주재료는 대부분 가래떡과 고기육수를 만들 양지, 고명으로 얹을 계란 파, 김가루 등이다.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떡국은 탄수화물 75%, 단백질 12%, 지방 12%로 구성되어 있다.

한 그릇 당 칼로리만 따지면 430kcal로 높아 밥 1.4공기에 해당된다. 양으로만 따지면 밥 1그릇의 양은 250ml이고 떡국 한 그릇의 양의 650ml가 된다. 그렇다고 마음 놓을 일은 아니다. 떡국은 다른 설음식과 함께

먹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걱정 없이 떡국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설에 꼭 먹게 되는 떡국은 '국' 이 아니라 '밥' 이란 사실을 우선 명심하도록 하자.

떡국은 '밥+국' 을 대신하는 주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열량도 1인분에 430kcal로 공기밥 한 그릇 300kcal를 훌쩍 넘어 거의 한 끼 식사와 맞먹는다. 떡국 한 그릇에 나이 한 살을 더 먹을 뿐 아니라 몸무게도 늘어날 수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2. 가능하면 작은 그릇에 먹어라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작은 그릇에 담아 양은 줄이고 한 그릇을 먹었다는 포만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3. 떡국보다 더 무서운 칼로리는 전, 갈비 등 설음식이다.

사실 떡국 칼로리보다 전, 갈비, 잡채 등의 칼로리는 더하다. 또 떡국에 만두까지 들어간다면 칼로리는 더 늘어나게 된다. 만두 한 개 쪼이아라고 방심할 일은 아니다. 참고로 고기만두 1개는 63kcal, 김치만두는 33kcal이다.

4. 고기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무 등으로 국물을 내자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오래 묵힌 국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명과 김 가루만 올려도 담백한 맛이 살아나면서 칼로리도 줄인 떡국의 맛을 즐길 수 있다.

5. 많이 움직여 칼로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과식할 정도로 먹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도록 하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방안에만 있지 말고 움직이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떡국의 전통적인 육수는 쇠고기와 꿩고기를 사용해서 담백하게 끓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꿩은 야생동물이라 구하기 쉽지 않았고 쇠고기는 값이 비쌌다. 때문에 서민들은 그보다 흔하고 가격이 싼 닭을 꿩 대신 사용했다.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보고 '꿩 대신 닭' 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끓인 떡국에서 나온 말이다.

예전 설에는 떡 방앗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며 쌀 찌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곤 했다. 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을 받아 오는 모습을 흔히 볼 수도 있었다.

이제 이런 풍경을 접하긴 어렵지만 새해 첫 음식으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길게 늘어 만들었다는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는 모습은 여전하다. 새해 음식으로 먹는 떡국은 우리 민족의 입맛과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칼로리가 있음을 알고 후회 없는 한 해를 시작해보자.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떡국 한 그릇 소비시키기!!

떡국 1인분의 칼로리 433kcal와 동일한 운동은 무엇일까?
또 움직임에 따른 칼로리 소비를 알아보자.

떡국 칼로리와 동일한 운동 알아보기-체중 60kg기준

걸기 206분(산책), 줄넘기 41분, 자전거 51분, 헬스 75분, 수영 46분

가사노동(10분 기준)의 칼로리 소비 알아보기

10분휴식(앉아서) 10, 아체썰기 20, 설거지 23, 청소(청소기 이용) 23, 육조 · 변기 청소 40

가사노동은 노동일뿐이다. 설거지는 19시간, 청소기를 이용한 청소는 18시간을 해야 떡국 한 그릇만큼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시키기만 한다면 43시간이 지나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방사선 치료가능하게 한 최첨단 방사선치료 장비 래피드아크



김현정 교수 | 방사선 종양학과

- 전문분야 :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 진료시간 : 월·수(종일), 목·금(오후)
- 문의 :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IGRT센터 ☎032-890-3076

올해 2월부터 본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래피드아크는

현존하는 최첨단 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영상유도방사선치료가

기본적으로 실행되면서 이보다 발전된 형태로 새로운 치료 기술인 체적변조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는 최첨단 방사선치료 장비입니다.

RapidArc

래피드아크 방사선치료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치료기가 환자의 주변을 360도 연속 회전하면서 종양을 3차원적으로 일시에 인식하여 방사선조사를 하는 체적변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용화 되어 사용중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장비의 경우 1회의 치료가 5~8개의 방사선치료 필드로 구분되어 각각 필드당 4~8분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였고, 총 20분~60분의 시간이 필요로 하였으나, 래피드아크는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전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시간을 4~10배 가까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시간 단축으로 오랜 치료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소시켜,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경부암 또는 뇌암의 경우 종양의 가까운 주위에 방사선에 민감한 정상 장기들이 있어 정밀한 방사선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래피드아크에서는 치료 전에 치료기에 부착되어 있는 CT로 치료부위를 촬영하여 치료 전에 치료계획하였던 영상과 비교하여 방사선조사 위치를 정확히 찾고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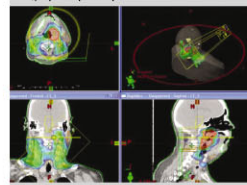
폐암이나 간암의 경우 환자의 호흡에 따라서 종양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존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나 토모테라피의 경우는 움직이는 종양을 추적하여 치료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 범위에 걸쳐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방사선치료 시 종양 외에도 정상조직에 많은 양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래피드아크는 영상유도방사선치료 기능을 이용하여, 호흡 시 움직이는 종양이 일정한 위치에 도달할 때 방사선을 조사하는 호흡연동치료를 함으로써 종양에는 좀더 정확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주위의 정상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래피드아크는 기존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주요 치료 질환인 두경부암, 전립선암, 뇌종양을 기존의 방사선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에 발생한 원발성 종양과 각 부위 발생된 전이성 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전으로 다수의 종양을 한번에 치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양 주변에 민감한 장기가 있어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경우, 이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부위에 종양이 재발하여 기존의 방사선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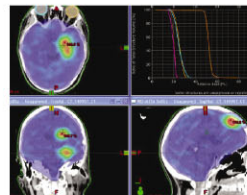
그러나 래피드아크는 기존의 방사선치료보다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치료계획을 얻고, 치료 전에 정확한 치료를 위하여 선량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고도의 정확한 방사선량을 조사할 수 있는 고정밀 방사선조사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나 토모테라피의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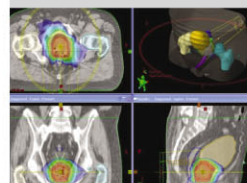
래피드아크 치료



두경부종양의 래피드아크 치료



다발성 뇌전이암의 래피드아크 치료



전립선암의 래피드아크 치료



시험, 면접, 맞선 등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 순간들, 그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복통과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대장내시경이나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확인되는 특별한 병변 없이,
배변에 의해 완화되는 복통, 변비 또는 설사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나, 자극적인 식품섭취, 폭음, 폭식, 과량의 찬음식 섭취, 알코올 등의 식사성 요인과 과민한 대장점막, 자율신경의 실조에 의한 장관 운동성 변화 등의 요인, 과로, 불안과 긴장 등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15% 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복통이 심하더라도 배변 후에는 호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복부팽만이나 잦은 방귀, 변비, 배변 후 잔변감, 음주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잦은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증상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되더라도

몸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특수 검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으며, 대변검사,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중감소, 혈변, 빈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거나, 50세 이상에서 증상이 처음 생긴 경우, 대장 내시경검사, 복부 CT 검사, 소장검사 등을 통하여 대장암이나 만성 장염과 같은 질환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원인 질환이 마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소화기 증상(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 후



권계숙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분야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 진료시간 : 수·목(오전), 화(오후)

• 문의 : 소화기내과 ☎032-890-2224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반복되어 만성적으로 나타나거나, 설사나 변비와 같은 배변장애 및 배변 후에도 잔변감으로 인한 불편감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

치료는 무엇보다 환자가 본인의 병을 잘 이해하고, 증상을 유발시키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는 장의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진경제, 장운동 조절제, 변비에 효과적인 부피형성 완하제(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 등의 약제를 사용하며, 약간의 신경안정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답변

질문 수년간 잦은 설사 및 복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때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말을 들었는데,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최근 1~2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받았던 분이라면, 또다시 검사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중감소나 혈변 등이 나타나거나, 과거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기질적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답변 먼저, 특정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카페인, 술,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너무 맵거나 짭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이 대변의 양이 증가하고 부드럽게 되어 변비가 호전되나 양배추, 콩과 같이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 약물치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순간에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경험 때문에, 의욕상실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약물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약물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식생활 실천사항

1. 평소에 먹었을 때 장에 불편을 주는 식품을 확인하고 그 식품의 섭취를 피한다.
●가능성 높은 음식 : 우유, 유제품, 고지방식품, 가스형성식품, 카페인은음료, 알코올, 많은 양의 과당 및 소르비톨 함유식품,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
2.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규칙적으로 먹도록 한다.
3. 많은 양의 섬유소 식사가 가스를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식이섬유소의 함량을 서서히 늘리도록 한다.
4. 배변을 돕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되, 특히 아침 일찍 차가운 물을 마신다.
5.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특히 복근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장의 운동을 촉진시킨다.
6.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고 아랫배는 항상 따뜻하게 한다.

‘언어’와 ‘걸음걸이’ - 입학 전 챙기세요!!

여섯 살짜리가 사과를 ‘타과’라고 하는 것은 언어장애

3월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됩니다. 모든 학교들과 유치원들도 새로 입학생을 받고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겠지만 학부모들은 남모름 고민에 빠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긴 겨울동안 부모님들이 챙겨야 할 중요한 문제들 중에는 언어발달 지연과 걸음걸이의 이상이 있습니다. 두 문제들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교정하려면 이미 늦어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꼭 챙겨야 할 두 문제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language & steps

말이 늦어요!!

세 돌짜리 아동이 ‘사과’를 ‘타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여섯 돌 된 아동이 ‘타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크게 언어발달장애, 조음장애, 말더듬, 그 밖에 언어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어장애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Q: 말이 늦는 것은 혀가 짧아서 그런가요?

A: 혀가 짧아져 있다는 것은 혀 밑에 붙어 있는 끈인 설소대가 짧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설소대가 단축된 경우 혀를 마음대로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발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설소대 단축이 있다고 하여 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발음이 안 좋은 경우에도 설소대 단축이 원인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설소대가 정상적이라도 혀를 입천장 쪽으로 올리거나 내밀거나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여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명옥 교수 | 재활의학과

- 전문분야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 진료시간 : 목(오전), 월, 화, 목, 금(오후)
- 문의 : 재활의학과 ☎ 032-890-2480

Q: 우리아이는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해요.

A: 진찰실에서 보호자들과 가장 흔히 듣는 말씀입니다. 물론 표현력만 지연되는 언어장애가 있습니다만 대개 언어 이해력의 지연을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이 두 돌만 되어도 웬만한 심부름을 할 만큼의 이해력이 생기므로 알아듣는 능력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해력이 나이에 비해 저하된 경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Q: 말이 늦으면 모두 단순 언어장애일까요?

A: 말이 늦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말이 늦는 경우의 50% 이상은 지적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청각장애, 구개열, 간질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언어장애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원인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단순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Q: 말이 늦다고 생각될 때, 언제쯤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원인 인자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조기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단어 구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18-24개월, 두 단어 연결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늦어도 30개월 전후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활의학과를 통해 적절한 진찰과 함께 언어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발달평가 및 영상 촬영 등을 시행 후 상태에 맞추어 언어치료를 통한 맞춤형 언어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진단된 질환에 따라 구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소아정신과적 치료, 이비인후과 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아이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걸음걸이의 이상은 흔히 평발이라고 부르는 편평족과 O자 다리, 안짱걸음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린 나이에는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학교에 들어갈 시기에는 이미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되시면 바로 족부클리닉을 방문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Q: 편평족은 꼭 교정이 필요하나요?

A: 2-3세까지의 평발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며, 그 이후로 서서히 종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평발의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걷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나 종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뒷꿈치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종아리를 지지해주고 발 안쪽을 높여주는 깔창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4-5세까지 종아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깔창이나 맞춤형발을 처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발이 계속되면 어른이 되어서 족저근막염, 중족골통, 관절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진찰 및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O자 다리는 언제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태어나서 2세까지는 O자 다리, 2-6세까지는 X자 다리가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O자 다리(내반슬)나 X자 다리(외반슬) 모두 과도하게 휘어져 있으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O자 다리가 더 흔하며 3세가 넘도록 지속되는 경우 자연적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진찰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교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관절 윗쪽의 과간 간격을 측정하여 5cm 미만이면 도수 신전 운동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비만인 경우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간 간격이 5cm 이상인 경우 밤에만 착용하는 교정기를 약 2년간 사용함으로써 교정이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벨트로 조이는 방법이나 깔창만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안짱다리는 교정 수 없는 건가요?

A: 일반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안짱걸음이 참 많다고 하지요? 안짱걸음은 부모님이 더 걱정하여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흔한 걸음걸이 이상입니다. 발의 앞꿈치가 안쪽을 향하는 걸음으로 8자 걸음의 반대가 되겠지요. 의학적으로는 내측지보행이라고도 합니다. 원인은 대퇴골이 골반으로부터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대퇴골 전염이 가장 흔하며, 발목 위쪽에서 경골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경골 내염전, 발가락의 중족골이 안쪽으로 돌아간 중족골 내전 등이 있습니다. 8세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전에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흔히 알고 계신 신발 양쪽을 바꾸어 신기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휘게 만들 수 있으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아이들이 W자로 엮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다리를 4자 모양으로 만들어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신장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감별진단이 중요하므로 우선 족부클리닉을 방문하여 세밀한 진찰과 함께 고관절 CT 등을 시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짱다리는 어렸을 때 잘 치료하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가정의학과 금연 클리닉

담배 연기의 미학과 그 비참한 몰락

아름다운 흑백의 고전영화 속에서 귀족적인 남자 주인공들은 차갑게 비 내리는 밤에 트렌치 코트의 옷깃을 세우고 옛 사랑을 떠올리며 담배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 고혹하고 로맨틱한 모습에 잠시 우리는 실제 흡연자의 누런 치아와 퀴퀴한 입냄새, 그리고 가끔 거리에 내뿜는 가래침의 역겨움을 잊었다.



이연지 교수 | 가정의학과

- 전문분야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 진료시간 : 가정의학과 - 수, 금(오전)
비만센터 - 월(오전), 화·금(오후)
- 문의 : 가정의학과 ☎032-890-2240
비만센터 ☎032-890-3360



한때 성적 매력과 로맨스의 소품으로 여겨지던 담배 연기는, 세월이 흐르며 시대의 아픔을 대표하는 '루저(?)'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라는 노래처럼, 부조리한 시기에 할 일 없고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의 꼬질한 이미지와 찌그러진 담뱃갑, 지저분한 재떨이, 담뱃볼로 지저진 방바닥과 가구들은 묘하게 어울리며, 담배는 서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그래서인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금연 정책은, 한 인기 정치인에 의해 '서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선적 발상'으로 비난 받는 것이 10년도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담배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 어느 때 보다 질병예방과 건강노화를 중요시하게 된 오늘 날, 담배는 '내비 뒤,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를 외치는, 삶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용맹한(?) 무기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미 담배의 니코틴에 중독되어, 뇌가 보내는 니코틴에 대한 갈구를 충족시키면서 삶에 실존하는 결손의 문제를 잊어 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피부노화나, 성기능 감퇴, 미래에 걸릴지 모르는 뇌졸중, 심장마비, 폐암 따위는 사생할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흡연자의 곁에만 있어도, 옷에 묻은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이, 그 2차 간접흡연자의 가족, 특히 어린 영유아에게 아토피, 천식 등의 건강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제 더 이상 흡연이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담배와 이별해야 할 시대

포스터 속 담배연기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하던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에 걸려 목소리를 잃었거나, 기관지 천식으로 끊임없이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금연 포스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금연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웬만큼 사는 나라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공장소 금연정책에 이어, 10년 후의 금연 정책은 어떻게 진화할까? 아마도 담배는 지금의 마리화나 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마약으로 규정되며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흡연자는 마약 중독자와 동류

로 취급을 받으며, 2차, 3차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격리치료를 표준 치료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 현재에는 확실한 물증이 없지만, 아토피 피부염, 학습능력저하 등의 자녀문제와 담배연기 속 물질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흡연했던 부모들은 자식들의 원망을 평생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평생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담배와 헤어져야 한다.

금연은 주치의와 함께

금연을 원하는 당신에게 주치의는 2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첫째, 당신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인가?

둘째,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는가?

이 두 질문으로 당신의 니코틴 의존도와 현재의 금연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첫 담배를 피운다면 당신의 니코틴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서 당장 금연을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다. 이럴 때 주치의는 당신의 뇌가 중독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약(항우울제 계열)과 니코틴 껌이나 패치와 같은 담배대신 니코틴을 공급해 주는 금연보조제를 한동안 처방하면서 흡연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하루 한 갑 이하의 흡연량과 기상 30분 이후의 첫 담배 흡연은,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낮아져도 이성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니코틴 의존도를 나타내고, 이는 당신이 이제 금연을 시도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럴 때 주치의는 당신에게 금연일을 정하고 금연을 위한 기념식을 준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금연은 생일이나 명절처럼 인생의 중요한 날로 기념되어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처절한 노력을 결코 방해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 금연 전 아제에는 담배와 관련된 모든 주변 사물은 버려져야 하고 옷과 옷장, 집, 차 내부는 청소되어 꾸짖힌 담배냄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금연약을 챙겨먹어야 한다. 약을 먹고 금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여차피 담배에 의존해서 수십 년 동안 손상된 자존심으로 살아온 인생이니, 석 달 더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루 2알의 약이 당신의 금연 성공률을 크게는 10배까지 높여 줄 수 있다.

‘정직’과 ‘헌신’이라는 2가지 원칙 지키는 의사로!

정리 | 대외협력홍보실

어느 날 원내 직원용 자유게시판에 훈훈한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턴 박정진 선생님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댓글이 이어지고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간호부 송년회에서 친절인턴, 중무식에선 친절봉사직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의 또 한 명의 훈남 인턴 **박정진**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간호부에서 선정한 친절 인턴 선정과 병원 친절봉사표창까지 수상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제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거 같아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평소대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예전 보다는 많이 부자연스럽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예전처럼만 하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매력은 매력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항상 퍼주는 마음이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에 퍼주는 마음이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 피곤한 인턴 생활 속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 바쳐야 하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자신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헌신해야 하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의대 편입 준비를 하면서 읽은 책에서 가장 감명 받은 구절이며 항상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되게 해 주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 여쭙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를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채워 주는 착한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상 많이 퍼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많이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채워주겠지만, 함께 서로 채우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항상 베풀면서 살아가라’.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누누이 하시던 말씀이며, 술선수범하셨던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 다니며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기’를 조금씩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지병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밤낮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만났던 환자들의 이름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다들 기억에 납니다.

특히, 제가 인턴이 되어 처음 배정받았던, 이비인후과에서 만났던 lymphoma환자가 기억에 납니다. 환자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아 우울해하고 있었으며 의욕 상실을 보였던 환자였

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잠깐이지만, 환자분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저와 환자는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감이 도움이 되셨는지 환자는 수술 후에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근심을 떨치고, 그 환자분은 수술 후 적극적으로 항암치료에 임하시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환자를 계기로 환자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큰 효과를 낸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비록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일을 하는 인턴이지만, 드레싱하는 환자, 채혈을 하는 환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질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웃는 얼굴로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가는 환자들을 볼 때, 더욱더 제가 하는 일이 저에게 잘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환히 웃어주는 환자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고도 싶고 1~2일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폭 쉬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저의 시간이 없다는 게 요즘의 불만이라면 불만인 거 같습니다.

장차 포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사상과 환자에게 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으신지요?

‘정직’과 ‘헌신’이라는 2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직’: 의료 행위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믿음이 바탕으로 깔리기 위해서는 정직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솔직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진료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은 의료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의술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지식을 습득한 사람의 의무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지식을 배운 이상,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명 앞에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기가 응급실 근무라서 무척 바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쁜실 와중에도 협조해 주신 박정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

글 ·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고 바람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그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기! 특히 운동 중에서도 체지방 감소, 심폐 체력의 향상,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다.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운동의 형태, 시간, 빈도, 강도 그리고 흥미이다. 다섯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계획하여 2010년 힘찬 출발을 시작해보도록 하자.

운동 형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수영, 등산 등 혼자서 즐기는 운동과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등 그룹으로 행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자서 즐기는 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력 수준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꾸준히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데 유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강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스포츠 활동은 젊은 연령층이나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이며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상대방과 부딪힐 위험이 있고 강도가 세므로 부상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운동을 처음 시작 하신 분, 과체중 그리고 근·골격계(허리, 무릎, 발목)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지걷기, 자전거, 수영과 같이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을 시작하여 체력 향상, 체중 및 통증 감소 후 스포츠 활동에 도전하도록 하자.

운동 시간 및 빈도

미국 스포츠 의학회(ACSM)에서는 유산소 운동 시 주 3-5회 실시하며 20~60분 정도를 권장하며 하루에 150-400kcal의 에너지 소비량을 목표로 주 당 최소 1000kcal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간혹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지만 믿고 10분 이상 걸을 때 숨이 많이 차거나 무릎이나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지만 참아가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10분 걷고 3분 휴식 후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총 운동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운동의 효과는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리든지 혹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동 강도

운동 처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강도이다. 내원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한다. “저는 걷기와 러닝 중에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를 알아야 한다. 목표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 목표 심박수 구하기

최대 심박수 : 220 - 나이

목표 심박수 : 【(최대심박수 - 안정시 심박수) × 운동강도】 + 안정시 심박수

※ 나의 목표 심박수 구하기 (50 - 70%)

50% 운동 강도 : 【(-) × 0.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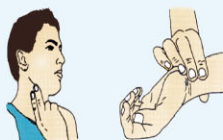
70% 운동 강도 : 【(-) × 0.7】 + () = ()

예로 50세 남성의 안정 시 심박수가 70박이라고 하면,
50% 운동 강도 : 【(170 - 70) × 0.5】 + (70) = (120)
70% 운동 강도 : 【(170 - 70) × 0.7】 + (70) = (140)
즉, 이 분은 운동 시 적당한 강도는 120 - 140박 사이가 된다. 안정 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은 요골동맥이나 경동맥을 통해 측정하며 손목시계를 이용해 10초간 심박수를 계산하면 된다. 가령 10초에 12번이면 안정 시 심박수는 72박 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

하여 위의 50세 남성의 경우 운동 중 맥박을 측정하여 10초에 20~23번이면 적당한 운동 강도라 할 수 있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은 50%강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10초간 심박수1분간 심박수〉

올바른 맥박 측정부위



10초간 심박수	1분간 심박수
18	108
19	114
20	120
21	126
22	132
23	138

맥박을 잡기 어려우신 분이나 심혈관계,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관적 운동 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약의 종류에 따라 맥박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켜 맥박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박수를 이용하는 강도 설정이 알맞지 않다. 주관적 운동 강도는 운동 중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이며 이는 약간 숨이 차면서 옆 사람과는 대화가 오갈 정도의 느낌이다.

흥미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이나 색깔 등이 있듯이 운동 역시 선호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마련이다. 걷기를 지루해하는 사람, 공놀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룹보다 혼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등 운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흥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비만인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중을 빼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걷기를 시킨다면 운동의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곧 흥미를 느끼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운동을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선호하고 흥미를 느끼며 자신에게 가장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비만센터 ☎032-890-3360

저를 스쳐간 많은 환자분들에게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기에 더 진한 기억으로

글 · 박정희 간호사 | 병동간호팀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7병동에서 근무하는 박정희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간호를 했던 많은 환자분들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질병이라는 큰 짐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만남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삶이라는 것이 항상 기쁘거나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마주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이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시지요? 병원이 두려운 것은 처음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나 지속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되어버린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상처 받으신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간호'라는 선한 일을 하면서 손길이나 말투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면 다른 행동보다도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디에서든 하지 못한 말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게 되어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 듯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 좀 더 높은 기대치로 방문하게 되지만, 늘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불편을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사 첫 달, 한 달간의 교육이 있지만 그 이후에 훨씬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실제로 겪게 되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이라면'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저라면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바라봐 주신 환자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오히려 환자분들께 치료받는다든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힘들다는 함양요법을 받으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과 오히려 간호사들을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큰 용기와 감동을 받았고, 질병 때문에 왔지만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오히려 환자분들께 치료받는다든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힘들다는 항암요법을 받으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과 오히려 간호사들을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큰 용기와 감동을 받았고, 질병 때문에 왔지만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전혀 때 묻지 않은
해맑은 소아 환자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혀 때 묻지 않은 해맑은 소아 환자들의 모습에서 기
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같이 아파
하며 간호하시던 보호자분들의 모습, 특히 연세가 많으
신 할머니 환자분들을 간호하시는 나이 지긋한 보호자
분들의 모습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제가 생활하면서 겪는 힘든 일들을 잊게 해주
는 삶의 응원가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을 되돌아보니 특히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분만한 후에 퇴원기간이 다가왔는데, 퇴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산모분이 병원에 계실 동안 여러 곳으
로 동분서주 뛰어다니셨던 보호자분, 지금 어떻게 지내
시나요? 그 때는 정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어
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
에 죄책감으로 남아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만 형편상 아이를 입양 보냈던 산
모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헤어지는 모습이 아직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의 작은 위로로는 힘이 되어드리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리가 불편하신 보호자분이 계셨는데, 어머니를 간
호를 하며 자신도 휠체어를 타고 환자분의 휠체어까지
밀고 병동을 다니셨던 그 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만남이 좋은 것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
었지만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더 진한 기억
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병원에서 보여 주셨던 모습과
같이 맑고 밝은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뒤에서 항상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인년 새해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2009년은 인하대 병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숙제를 준 한해입니다.

‘JCI’, 처음 JCI라는 말을 듣고 첫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건 과연 무엇인가? 어쩌하라는 것인가? 몇 년 전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한 것을 때 살짝 접해 보았던 그 단어! 부담스럽고, 적응도 안 되고....

인하대병원의 개원과 함께 늘 환자와 함께 24시간을 지켰던 저희 간호사에게도 그 숙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JCI baseline assessment를 거치고 Mock survey를 하는 동안 우리 병원 직원 한사람, 한사람은 JCI에 대해 닫혀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 JCI라는 것은 우리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조금씩 변화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병원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변화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목표가 하나가 되어서, 시스템이 변화했고, 과감한 투자로 인하여 시설과 장비와 기구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기와 전산을 병행하여 정말 힘들었던 EMR도 진화 했습니다. 물론 기존 방식이 바뀌므로 불편한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 “무언가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느낌!” “인하대병원이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우리 직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간호사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섭섭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간호부 송년회’.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500여 명의 간호사가 모여 마음껏 2009년을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호부장님도 이 시간만큼은 부장이라는 힘든 짐을 벗고 맘마미아로 변신하였고, 병동의 귀염둥이 신규 간호사도 걸그룹을 능가하는 춤 솜씨를 뽐내며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병동간호 1팀에서는 병동의 최고참 간호사 9명이 모여 몇날 며칠을 연습하여 ‘Sorry sorry’의 heroine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미적지근한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우리 간호사들은 송년회 행사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잠시 가정도 잊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한 결과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경인년!!

우리 인하인 모두 다함께 JCI 인증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봅시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내며....

**우리 직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글 · 서명순 간호사 | 병동간호 1팀 (동12병동)



◀글쓴이 서명순

good~bye... 2009...



▲ 1, 2, 3, 4, 5 - 간호부 송년회 ▲ 6, 7 - JCI 교육

청송 예찬

글 · 심재서 | 전 재무팀장



나는, 청송(靑松)이란 말만 들어도 정감이 가는 것은 심문관향(沈門貫鄕)이기도 하지만, 사계절 항상 푸르러 내 마음을 젊게 하고, 내가 더운 여름날, 노동 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지조(志操), 충절(忠節), 기개(氣概), 장생불멸(長生不滅)을 표상하여 나무 중에 나무라하여 백목지장(百木之長)이라 하였고, 기품이 군자에 이른다하여 군자목(君子木)이라 하였다. 소나무는 우리의 감성과 정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한국인의 정신적 자세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소나무가 있고 한국화에도 소나무가 있다.

나는 소나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항상, 푸르러, 청정한 기상을 보여주고, 겨울 눈이 내려, 흰옷을 입은 청아한 자태는 세심목(洗心木)이 되어주기도 하고, 등산길에 청량한 소나무향은 나의 심신을 맑게 하고,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는 나에게 강인함을 심어주었다.

일본주재, 회사 근무시절에 일본의 고등학교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졸업식장 단상옆에 단 한 개의 소나무 분재만 놓여 있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맘속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졸업생들에게 모진 세파에도 항상 곳곳하게 살아가라는 강인한 투혼정신을 한그루 청송으로 심어주고 싶었음이라...

소나무는 나의 인생길에 이정표가 되어주고, 내 인생에 스승이 되어 주기도 한다. 그런 소나무를 좋아하는 나는 조그마한 밭에 소나무를 가꾸고, 그 속에 정자를 세워 주말이 되면 일주일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힘을 얻어 인생 2막의 직장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며 즐겁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한민족 모두가 좋아하는 소나무! 꿈에 푸른 숲을 보면 집안이 번창한다는 축복의 소나무! 그래서, 성군이 시며 대왕이셨던 세종께서도(1424) “소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영(令)을 내린 것이리라...

겨울이면 인하대병원 정문 앞 넓은 정원의 정원수에 소담스럽게 핀 설화가 떠오른다. 아름다운 정원에 소나무도 더 많이 심어 푸르름을 보는 환자가 더 빨리 쾌유되는 희망과 축복의 푸른 숲을 정원을 그려 본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 청송 예찬과 함께, 우람한 청송과 범의 정기가 내가 몸담았던 인하대병원과 옛 동지인 인하인 모두에게 가득하시어 활기차고, 힘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 1월 4일에...

▼심재서 님의 소나무 정자



※ 심재서 부장은 인하대병원 건립본부 멤버로서 재무팀과 감사팀 부장으로 재직 후 2006년 정년퇴임하였다.

우리는 한가족

헬스조선과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Global Korea, 우리는 지구촌 한가족'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1월까지 국내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친척 등 모두 16명을 초청해 수술·치료를 해 줄 예정이다.



한국으로 시집온 키르기즈스탄 동포 칼리스칸(31·한국명 김나연)씨의 언니 마이람(37)씨도 이번에 한국에 초청돼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심장판막질환을 앓고 있는 마이람씨는 키르기즈스탄 현지 병원에서 “몇 달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키르기즈스탄에는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었고, 외국에 나가 수술 받을 형편도 못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마이람씨의 수술을 맡은 흉부외과 백완기 교수는 “심장 판막 중 승모판이 심하게 좁아져 혈액순환이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 조금만 더 놔뒀으면 심부전, 폐부종으로 진행돼 사망할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수술을 받은 마이람씨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얻었다”며 기뻐했다.

또한 양쪽 눈의 심한 백내장으로 2년 전부터 거의 시력을 상실하다시피한 중국인 자오하이룽(70)씨는 5년 전 시집 온 딸의 신청으로 수술을 받고 양쪽 눈 모두 0.8 정도의 시력을 회복했다. 몽골인 린친(23)씨는 무릎 탈구(脫臼) 재건 수술을, 베트남인 웬김비(46)씨는 담낭결석 제거 수술을, 중국동포 최혜복(57)씨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았다.

박승림 선생님!
Много Вам добра и здоровья.
Вы являетесь примером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и дарите
людям новую жизнь.
Спасибо!

마이람 2010.1.8
박승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악기 배우고 해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고맙습니다.
2010.1.8



▲감사의 편지를 읽고 계시는 원장님



▲흉부외과 백완기 교수와 마이람



‘인하 나눔 지기’ = 희망

우리 병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사회복지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송모금, 기업모금, 특별 이벤트 모금 등.. 우리 병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인하 나눔 지기’는 급여의 천원단위를 모으는 급여 자투리 모금, 정기기부, 수시기부, 저금통 모금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특히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급여 자투리 모금은 전직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병원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인하 나눔 지기’ 기금은 68,223,251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 자투리가 7,695,018원, 급여 일정 기부액이 25,571,000원, 수시로 전해주시는 금액과 기타 모금이 34,957,233원 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2009년(3월~12월) 43명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49,824,259 원을 의료비 후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료비 후원 대상자는 가족기능 약화, 노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우리사회의 변화로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비 후원을 받았고, 특히 국가나 민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후원의 혜택을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인하 나눔지기’는 유용하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얼마 전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6 회의 항암치료 중에 3회는 이미 받았으나, 의료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 이혼하였고 하나 뿐인 아들은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 남은 항암치료 비용으로 120만원이 필요하였는데 치료 비용이 없어서 남은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의대학생회장이 의대축제의 수익금120만원을 ‘인하 나눔지기’ 기금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위 환자를 연계해 줄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포기한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감사의 말을 몇 번이나 전했습니다. 환자가 다시 시작한 항암치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 사진과 사연 소개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 의료비 지원 및 후원 관련 문의 :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김기화 의료사회복지사 ☎ 032-890-2870

금연 보조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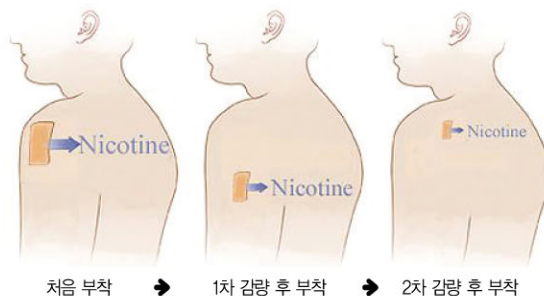
Q: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금연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금연을 돕기 위한 많은 종류의 금연 보조 약물이 알려져 있는데, 먹는 약, 패치(patch), 껌 등 제형 또한 다양합니다. 그 중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로는 Varenicline (Champix®)와 Bupropion (Wellbutrin®)이 있습니다.

Q: 금연 패치제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니코틴 패치는 피부를 통해 담배를 대신하여 니코틴을 체내에 공급하면서 금연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며, 흡연 욕구를 줄여나가는 약물입니다.

일례로 니코스탑®의 경우 환자의 흡연 정도에 따라 -30 또는 -20으로 시작하여 매일 교체하며 니코틴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20, -10으로 감량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 자료인용 : Healthwise.incorporated

Q: 먹는 금연 보조 약물은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A: 먹는 약물인 Varenicline(Champix®)는 기존의 치료 약물과는 달리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해소하며, 또한 니코틴의 효과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흔한 부작용은 구역, 구토입니다. 또한 최근 우울증, 무기력감 등의 부작용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금연 보조 약물의 장기간 복용시에는 의사/ 약사와의 상담이 중요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Reference: www.druginfo.co.kr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환자뿐 아니라 고객을 위한 쾌적한 공간

우리 고객들과 직원들의 오랜 바램이 이루어졌습니다

- 꽃집
- 인하 메디칼(의료기)
- 유니룩스(세탁방)

중식당
(GRAND DELIA 안)



GRAND DELIA ●



죽 이야기 ●



- 파리바게트
- 베스킨라빈스



● 파파이스



● 빛은 떡



● GS 25



인하대병원 '인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특화 검진' 실시 원장님 가족에게 '건강' 을 선물 드립니다!!

의사라고 하면 병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평소 건강에 더 신경 쓸 것이라
고 생각하지만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나 기회를
놓쳐 일반인보다 건강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하대병원에서는 의료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자는 취지로 '인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특화 검
진' 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개원의 원장님을 위한 '개원의
검진' 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평일에 진료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
황을 고려하여 이번에 일요일 특화 검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PET-CT, MRI, 3D Angio CT 및 특정
암표지 혈액검사 등 특수항목 뿐만 아니라 통계청 발표에 의한 남녀 주
요 사망 질환 10위 안에 드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폐암, 허혈성 심장
질환, 위장질환, 대장질환, 간질환 중심으로 검사항목을 구성하고 각
해당 진료과 교수가 직접 검사하도록 준비하였으며 검진 대상도 원장
님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본원 직원가족과 동일한 감
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장님 및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원의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로 인하대병원이 나서겠습니다.

▶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0년 2월 21일(일요일) 08:00~
- 대 상 : 원장님 및 배우자
- 장 소 : 인하대병원 본관 3층 소화기센터
- 비 고 : 30% 감면 적용, 검사 전날 대장내시경 전 준비

▶ 검진항목

유형	검 사 명	검 사 해 설
기 본	Chest CT (Non contrast)	폐의 횡단면을 투과한 X선의 강약 정도의 차이를 컴퓨터를 이용, 2,3차원의 영상을 재구성,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의 유무, 크기, 기능변화, 암전이 여부
	Abdomen+Pelvis CT(Contrast)	간질환, 당뇨병질환, 위장질환, 췌장질환, 비장질환
	Duodenoscopy	식도 · 위 ·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삽입하여 염증성 질환, 출혈, 정맥류, 용종, 점막하근증, 궤양, 종양 등
	Total Colonoscopy	항문-충수돌기의 명장 부위까지 내시경을 삽입, 대장용종, 장결핵,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 계실질환, 항문질환, 그 외 장염 등
선 택	수면내시경(EGD+Colon 동시)	
	PET CT+암표지자 4종 [AFP, CEA, CA19-9, PSA(남)/CA125(여)]	CT 영상을 밑그림으로 이용, 그 위에 생화학적인 PET 영상을 겹쳐 PET에서 발견된 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 종양학 :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림프암, 유방암, 근골격계암, 자궁암, 간암, 설암 - 뇌과학 : 간질, 치매(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뇌종양, 뇌허혈성질환 - 심혈관계 : 관상동맥질환 진단, 생존심근 판별
	Brain Angio MRI Brain MRI(without+with GD)	대뇌 및 소뇌의 해부학적, 선천성 기형, 종양, 염증, 뇌경색, 뇌출혈, 종괴, 낭종, 허혈성 질환, 치매
	3D Coronary Angio CT	1회 촬영으로 64개의 영상을 얻어 이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움직이는 심장(내부장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심장혈관(관상동맥),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등의 진단

▶ 기타

- 예약기간 : 2010년 1월 20일 ~ 2010년 2월 10일
 - 접수처 :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 ☎Tel : 032-890-3500 / 080-339-2000 ☎Fax : 032-890-3999 / 032-890-3100
 - 문의 : 이동열 대리 ☎032-890-3302
- PET 검사 선택 시, 휴일 동위원소 수급 불가하여 부득이 원장님께서 가능한신 평일(월~토) 08:00 ~ 09:00에 예약해 드립니다.
- 검진 적정 인원 미달할 경우, 건강증진센터의 평일 '개원의 검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유, 단순 수탁검사를 능가하는 인하대병원 특수 수탁검사 의뢰 시스템 실시

저희 인하대병원에서는 고가의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를 지역의료기관의 개원의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수탁 검사 의뢰 시스템 을 2010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병원에서 시행하던 검체를 이용한 단순 수탁 검사가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 단독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특수 의료 장비 및 고난이도의 임상 검사 272종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료의뢰센터를 통하여 특수 수탁검사의 예약/검사를 위한 접수/검사 시행/결과 제공에 이르기까지 One Stop Service 를 제공하여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검사를 위한 접수 시 접수비와 의무기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뢰해 주신 원장님의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위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인하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통한 전문 검사 및 진단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장님께서 진료의뢰하여 주신 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마친 후에 의뢰해 주신 병 의원으로 다시 보내 드리는 전원(의뢰)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수 수탁 검사와 함께 환자들이 거주 지역의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내실을 다지는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료과 및 검사항목(총 11개 진료과 272개 항목)

NO	진 료 과	건수	수탁검사 항목
1	심 장 내 과	4	TTE, Ambulatory BP monitoring 외
2	소 화 기 내 과	16	Capsule endoscopy 외
3	호 흡 기 내 과	3	Exercise induced Asthma test 외
4	안 과	18	OCT, HRA 외
5	이 비 인 후 과	5	ENG + Posturography 외
6	정 신 과	3	후유장애 종합심리검사 외
7	신 경 과	6	EMG + NCV 외
8	비 뇨 기 과	2	Video urodynamic study 외
9	재 활 의 학 과	20	VFSS, 근전도검사 외
10	핵 의 학 과	32	PET 외
11	영 상 의 학 과	163	CT 70종 MRI 69종 SONO 24종
합 계		272	



★ 자세한 검사항목 및 의뢰방법은 인하대병원 홈페이지 진료의뢰센터(WWW.inha.com/ir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익는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 ☎032-890-3500, ☎080-339-2000 로 문의바랍니다.

중동메디칼 _ 임희정 원장



경인년 새해는 완벽 시스템 혁신으로 전국구의 신장전문병원을 꿈꾼다!

질병뿐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진료 마인드

중동메디칼이 호텔 개념의 병원설립을 지향하며 진료를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의 일이다. 신장 질환 특히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 환자의 고통과 고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중동메디칼이다.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등 3명의 의료진과 60여 명의 직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맞는다.

중동메디칼은 2층에 35대, 5층에 25대의 인공신장기를 갖추고 있다. 인공신장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메디칼이 보유하고 있는 2대의 'HDF 인공신장기'는 일반적인 기계와 다르게 펌프가 두 개가 달려있고, 이 안 자체에서 투석 액이 만들어져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질을 높이고 있다.

중동메디칼은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이 첫 번째 추진계획이라고 임희정 진료원장은 말한다. 실제로 중동메디칼은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독거노인 돕기, 요양원 봉사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향하는 것은 노후까지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병원, 노후까지 책임진다는 진료 서비스 정신이다. 아울러 중동메디칼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환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 알선을 통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임을 지향한다.

전국구의 신장전문병원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일단 나를 찾는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연결해서 해내고야마는 열정이 대단한 임 원장이다.

“신장질환은 만성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죠. 환자들에게 요즘의 치과, 성형외과처럼 실내 공간도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뿐 아니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 2010년 새해에는 큰 병원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진료 시스템의 혁신을 예고한다. 신장전문병원을 꿈꾸는 중동메디칼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백화점 같은 병원, 전국구 병원으로의 성장을 꿈꾼다.

동문인 임 원장은 인하대병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또 따뜻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인하대병원이 항상 노력해주길 바라고, 문턱이 낮고, 친절하면서 진료 퀄리티를 높이는 대학병원으로의 위상을 당부한다.

임 원장은 어느 자리에서든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안전과 고품질의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지정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국내, 외를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고, 요양원까지 확산되는 ‘자유’라는 콘셉트,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현과 퇴직 직원의 사회활동까지 지원하겠다는 ‘봉사’의 콘셉트는 중동메디칼의 임무이자 비전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진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임 원장과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60여 명의 직원이 함께 하는 중동메디칼은 가슴 벅찬 새해를 맞는다. ‘중동메디칼’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커질 머지않아 올 그날을 기대하며 말이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록빌딩 5층 ☎ 032-665-2100



임희정 원장의 신장건강을 위한 Tip

1. 정기검진만이 살길이다. - 신장 역시 침묵하는 장기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늦는 경우가 많다.
2.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우습게 보지마라. - 세금내서 하는 건 당연히 챙겨야 한다.
3. 덜 짜게 먹고, 적절한 금연, 금주는 필수이다.
4. 비만은 신장에게도 적이다.
5. 약을 잘못사용하면 신장에는 치명적이다.
6. 신장이 2개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함께 병드는 경우도 많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병원 내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성료



2009년 12월 4일 중국 청도 인민병원 내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08년 12월 4일 진료를 시작한 국제진료센터는 인하대병원의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다. 또한 국제진료센터는 1주년 기념식에서 청도지역 소외계층을 상대로 의료봉사를 실시함에 따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청도시 한인상공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임상시험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11월 11일 (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3층 Coral Room 에서 제3회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남문석 교수)는 2008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 FERCAP survey를 통해 임상시험의 기관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허가용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신약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초기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임상시험 관련 실무책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JCI Mock Survey 실시 ●●

인하대병원은 2009년 11월 16일, JCI 인증 획득을 위한 Mock Survey가 진행되었다. 2009년 1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Initial Assessment 2009년 11월 21일(토)일 Action Planning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JCI 평가단은 "평가의 자세가 아닌 협조와 조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인하대병원이 JCI 인증획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협력의료기관초청세미나 개최 ●●●

인하대병원은 2009년 12월 2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 기독병원을 비롯한 총 48개 협력의료기관의 병원장 및 진료과장 등 150여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정충근





회장 및 구의사회 회원, 협력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승림 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석 변호사의 '의료정보화와 법적 쟁점'에 대한 특강, 류정선 폐암센터소장의 '폐암의 진단 치료기술 발전'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고 인하대병원 정한영 진료협력실장의 '진료의뢰센터 및 특수 수탁검사안내'가 소개되었다.

다국적 팸투어 실시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의사 및 방송관계자, 일본의 아사히 기자단 및 여행사, 중국 사천성 위생청 관계자 등 다국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무협업의 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실속 있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몽골 제2병원 의료진 본원 단기 연수 ●●

몽골 제2병원 부원장 외 의료진 11명이 단기 연수를 위해 인하대병원을 방문했다.

11월 13(금)부터 18일(수)까지 병원 투어를 시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연수를 마친 몽골 제2병원 의료진은 단기연수를 진행하였다. 약 1주일간 연수를 통해 몽골 제2병원과 인하대병원의 인적, 물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학술교류도 진행될 계획이다.



인천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 협약체결 ●●●

1월 5일(화)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이영수)은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경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본원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치매환자 발견 및 치매인식 개선, 예방교육, 치매환자 관리 및 연구 등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



한국청년회의소(JCI)로부터 감사패 수상 ●●●●

11월 19일, 인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인하대병원이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등 그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청년회의소(JCI, 회장 주지홍)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인하대병원과 한국청년회의소는 지난 8월 17일 ~ 22일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현지인들은 물론 교민들을 상대로 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몽골 의사 연수 수료식 ●●●●●

2009년 12월 29일, 몽골 의사 아요르자나 난살마(AYURZANA NANSALMAA)의 인하대병원 의료 연수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원의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혈액종양내과 분야에 대한 지도로 연수를 받았다.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 'KBS 체험 삶의 현장' 과 함께 의료봉사 ●

12월 9일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인천 만석동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KBS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를 실시 했다.

이날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KBS 아나운서 및 개그맨, 방송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함께 했으며, 선물전달 집수리, 연탄배달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신종플루 무료진료 및 봉사활동 ●●

12월 4일, 동인천(중구 화평동 성언의집)과 부천역을 찾아 지역 주민 및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인하대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가입되어있는 '보건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함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거리 노숙인을 위해 실시되었다.



SK 와이번스 선수단 팬 사인회 개최 ●●●

2009년 11월 20일(금) 인하대병원은 SK 와이번스와 함께 사랑의 팬사인회를 열었다.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이번 사인회는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승호(투수), 전병두(투수), 고효준(투수), 최정(내야수)이 참여했으며, 소아병동의 환아들에게 사인볼을 전달하고, 로비에서 사인회를 진행하였다.



연말 공연 풍성 ●●●●

12월 병원에서는 풍성한 공연을 준비하여 환우들과 보호자들, 교직원들에게 훈훈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렉서스자선공연으로 프렐류드의 수준 높은 공연과 환상적인 미술쇼, 병원 동아리 힐링밴드의 칸타타공연, 주안미션 리틀챔버오케스트라와 플루트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양현경과 음악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김인용 차장,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 회장 선임 ●●●●●

12월 9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회 정기총회에서 공항의료센터 김인용 차장이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핵의학과 표성재 감독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로부터 표창패 수상 ●●●●●●

12월 12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8차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원 핵의학과 표성재 감독방사선사가 대한방사선사 협회로부터 국민보건향상과 방사선기술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고운소리 사랑나눔회’, 인천광역시의회위원장 표창장 수상 ●

12월 11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인천시 자원봉사자 축제에서 ‘고운소리 사랑나눔회’ (회장 임상시험센터 박광원) 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의회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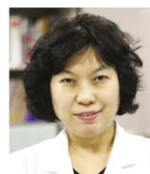


연말 대외 표창 수상 - 감염관리실장 정문현 교수, 의료정보과 이선옥팀장 ●●

2009년을 마무리하며 본원 교직원들이 대외적인 수상을 통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염관리실장 정문현 교수는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솔선참여하여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의료정보팀 이선옥 팀장은 국가보건의료 통계조사사업에 적극참여하여 보건복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정문현 교수 ●●



이선옥 팀장 ●●

인사동정

표창

●진료실적 우수 진료과

소아청소년과 전용훈 외
공향의료센터 신호철 외

●진료실적 우수 교수

감염내과 정문현
외과 이건영

●임상시험연구우수교수

내분비내과 김용성
정신과 김철웅

●친절봉사직원

교육수련부 이계왕, 박정진
교육수련부 박정진
병동간호1팀 유영근
병동간호2팀 유태분
특수간호팀 이은주
외래간호팀 박지숙
흉부외과 김지혜
재활의학과 김재곤
건강증진센터 이지나
대외협력홍보실 윤희창

원무보험팀

●공로직원

비뇨기와 성도환
산업의학과 황현정

●친절봉사부서

건강증진센터 신용운 외
특수간호팀(회복실) 이경미 외

●공로부서

의료정보팀 이선옥 외
인하사회봉사단 이홍식 외

홍보위원위촉

영상의학과 김규동
진단검사의학과 채희영
진료지원팀 이광숙
외래간호팀 유진희
약제팀 조래정
원무보험팀 강순자, 조인하

이정미

성도환
황현정

신용운 외
이경미 외

이선옥 외
이홍식 외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한
외래간호팀	강지은	병동간호2팀
병동간호2팀	김소영	외래간호팀

파견

소속	성명	발령사한
약제팀	오경선	임상시험센터

채용

●수습직원

병동간호2팀	강민정, 황송이, 정소라
병동간호1팀	김정윤, 김민혜

이달의 친절직원 및 부서

●12월

병동간호2팀(동11병동)	이희정
특수간호팀(내과계중환자실A)	이은혜

●1월

시설팀	한순덕
-----	-----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입과 안내

최고의 명 의와 교수진, 1:1 평생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CEO 의 건강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드리는 CEO 전용 건강관리프로그램입니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 알차고 세심하게 준비한 인하대병원의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요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교육기간 : 2010. 3 ~ 2010. 9
- 교육과정 : 총 34개 과정
 - 건강 관리 : 20개 과정 - 문화 교양 : 4개 과정
 - 경영/특강 : 8개 과정 - 레저/재미 : 2개 과정

지원절차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0년 2월 1일 ~ 3월 5일
- 지원 및 접수방법
 - FAX : 032-890-2605
 - 전화 : 032-890-2800
 - E-Mail : hc@inha.com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 사진 2매
(원서 부착 포함)
- 등록금 : 500만원
 - 공무원 입과시 350만원
 - 부부동반 입과시 배우자는 300만원
 - 해외문화 탐방 등 일부 과정에 대한 추가 비용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 입금계좌 : 하나은행 - 748-910003-38004
 - 예 금 주 : 인하대병원
- 문의 : H&C사무국 (윤희정 연구원)
- 전화 : 032-890-2800, H.P : 011-888-5033

3rd

H&C TOP MANAGEMENT... 2010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파랑새 송년의 밤

2005년 환우회 결성 이후 계속 이어져 오는 환우회 송년의 밤은 환우회 활동 중 가장 재미있고 뜻 깊은 행사로서 120여분의 유방 암 환우와 가족들이 모여 지난 일년간의 새로운 이야기와 결심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2009년 12월 11일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사로 시작된 송년회는 차량 섭 회장님과 친구들의 실내악 앙상블과 파랑새 임원님들이 준비한 단체 댄스의 감동으로 이어졌다. 내년 또 내년을 모두 무사히 보내길 희망하며 2010년을 활기차게 열 것을 다짐해 본다

● 행사안내

- * 제목 : 2010년 파랑새 정기 총회 * 일시 : 2010년 2월 18일 오후 2시
- * 장소 : 3층 강당





이번 호에는 응급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의 대화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 Doctor : Hello, I'm Dr. Kim. What brings you to the emergency room?

● Int'l patient: My stomach started to hurt severely last night. And this morning it moved to the lower right part of my abdomen.

의사 :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응급실로 오셨지요?

외국인환자 : 어젯밤부터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오른쪽 아래 배가 아픕니다.

● Doctor : Have you had bowel movements?

● Int'l patient: Not for three days.

의사 : 대변을 본적 있습니까?

외국인환자 : 3일간 없었습니다.

● Doctor : Please let me examine your abdomen, Does it hurt when I press here?

● Int'l patient : Yes, it's really painful.

의사 : 배를 진찰하겠습니다. 여기를 만지면 아픕니까?

외국인환자 : 네, 매우 아픕니다.

● Doctor: I think you have an appendicitis, I recommend some routine examinations before operation.

● Int'l patient: Is it serious?

의사 : 제 생각으로는 충수염입니다. 수술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 심각합니까?

● Doctor : Don't worry, You will be fine after the operation.

● Int'l patient : I hope so.

의사 :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 For your admission, please go to the Admission counter, and then, go to you inpatient nursing station for the instructions, 원무쪽의 입원수속 하는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하시고, 병동 간호사실에 올라가셔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항상 노력하는 Global Inha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Happy new year!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고모집

원보 인하대병원원 여러분은 글의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통팀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퀴즈 퀴즈 제52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과민성 대장증상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 ② 전형적인 증상으로 복통과 복부팽만이나, 잦은 방귀, 변비, 음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잦은 설사 등을 들 수 있다.
- ③ 수년 간 계속 되어도 몸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은 변비를 호전하게 하며, 특히 양배추는 가스를 억제한다.

2 취학 전 어린이의 언어와 걸음걸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① 언어의 발달은 6~7세가 되면 어른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 ② 말이 늦는다고 생각될 때, 단어 구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30개월 전후에는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 ③ 보통 2~3세까지의 평발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 ④ 안짱다리가 8세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

3 올해 2월부터 본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00000는 현존하는 최첨단 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영상유도방사선치료가 기본적으로 실행되면서 이보다 발전된 형태로 새로운 치료 기술인 체적변조 영상유도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00000는 기존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주요 치료 질환인 두경부암, 전립선암, 뇌종양을 기존의 방사선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에 발생한 원발성 종양과 각 부위 발생된 전이성 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전으로 다수의 종양을 한번에 치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Quiz 정답

1

2

3

♣ 제51회 QUIZ 정답

- ① 2
- ② 2
- ③ 다문화가정건강지킴이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조지선 신경외과 외래
- 박미선 경기 안산시 선부3동
- 김수현 인천 중구 중앙동2가
- 김경희 인천 동구 송현2동
- 이현희 인천 남동구 구월 3동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0년 01월 15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67명	630,750,348원	524,003,546원	

◎ 기부자 현황 | 2009년 11월 19일 ~ 2010년 01월 15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09. 12.02	인천도시축전	1,400,000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센티브(완납)
09. 12.08	홍기천 외	10,000,000	진료부원장가족(완납)
09. 12.10	제1기 건강CEO원우회	1,300,000	(완납)
09. 12.15	제2기 건강CEO원우회	1,000,000	(완납)
09. 12.15	용현운수(자)	1,000,000	제2기 건강CEO 이인철 원우(완납)
09. 12.15	채기석	1,000,000	제2기 건강CEO 원우(완납)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2/11(목), 3/10(수) 오후 2시 ~ 4시 홀수달 둘째주 수요일 짝수달 둘째주 목요일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무료공개 강좌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03월 11일(목) 14:00	당신의 신장은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김문재 / 이승우 / 송준호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2010. 01. 05(화) ~ 2010. 01. 30(토)	야생화 클럽 사진전	김효 외
2010. 02. 01(월) ~ 2010. 02. 17(수)	다큐멘터리 사진전	박흥기
2010. 02. 17(수) ~ 2010. 03. 20(토)	강혜연 개인전	강혜연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진료 시간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진료 시간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폐임센터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화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월, 목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수, 목	월			권수현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월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김철수	*	중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월, 수	월, 수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월, 화	목, 금			이문희	*	중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수, 목	월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수, 금			이현규		중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월), 화, 금	수 (목)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목	화	내시경센터 (☎2540~1)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친자확인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이동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정문현		간염성질환, 병원간염, 발열질환	월, 목	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이진수		해외연수(2009. 4 ~)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김미정		간염성질환, 병원간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화, 목, 금	목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정 석		해외연수(2009. 9 ~)					권성열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월, 수	수, 금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금*)			
	김철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금			최정란		관절염, 척추염, 통풍	금	화, 수			
	방병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일 반				금			
	양병혁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수, 목	화			
	임화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일 반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금	■폐임센터	외과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여성알센터 △비만센터 ★국제진료센터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금 (화), 목	화, 목 (월)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화), (금)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수), (금)		(월)	
폐임 센터 (☎3890)	이홍렬		폐종양	금		홍부외과	김광호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여성알센터 △비만센터 ★국제진료센터		
	곽승민		폐종양	수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류정선		폐종양	화, 목	월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조재화		폐종양		수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금	화			
	이현규		폐종양	월	목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금			
	남해성		폐종양		화, 금			최윤미	*	소아외과	(화), 금	월, 수			
	김광호		폐종양	화				김장용		혈관내치료		월, 수(★)			
	김정택		폐종양	월	목			김 광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수			
	윤용한		폐종양	수	금			이강연		유방, 내분비외과		(금)			
	정신과	이영지	불안장애		화			일 반			월, 목				
당뇨내과 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여성알센터(갑) 상선조작검사 ★국제진료센터	홍부외과 (☎228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목), 목		■폐임센터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목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목)	월, 목(수)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화*), 수	화, (수), 금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목)	수, 금(목)			
비만 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신경외과 (☎2370)	박중운	*	일반홍부질환	금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수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김은영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박현선	*	뇌종양, 신경혈관종, 뇌하수체, 뇌혈관기형	월, 수		월, 수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월, 화(수), 목		화, (목)		
	김진수	*	저지방질환, 영양학, 유방내과질환, 복부성형술		수			윤순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수, 금		화, 금		
	김순기	*	소아비만	금				김정민	*	척추질환	금		화, (수), (목)		
	이지은		해외연수(2009. 9 ~)					일 반			화, 금		월, 목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화, 금			박승림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 척추 및 사지	목				
	신장내과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국제진료센터	정형외과 (☎2380)	오인석	*	척추 및 족관절,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골절)	목	수	뇌종양, 신경혈관종, 성하 신경종, 뇌내혈종, 종양, 수요인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월, 수	김려석	*	스포츠의학(관절, 슬관절, 주관절, 족관절, 관절염, 관절염)	목		화, 목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월), 수	월, 목, 금			월, 목, 금	문경호	*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권수현		신장질환	금	수			수	김영규	*	스포츠의학(관절, 관절염, 인공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수
		김문재	*	신장이식	수					강준수	*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신장이식클리닉 신장센터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클리닉과 병행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관협착, 골다공증	화, 금	수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해외연수(2009. 9 ~)	배주한		견관절, 슬관절, 수부	금	월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정재훈		척추, 수부		화, 금
											일 반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약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약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능,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월 수(■), 금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병, 외상성장애, 불면증, 조기정신병	월,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유선혜		손외과 및 미세수술, 미용, 화상	월, 수, 금				이정성	*	소아청소년정신과학, 학습·주의력·언어-언어장애	월	화, 목, 금	학습장애클리닉·언어장애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목▲)	▲치매조기검진클리닉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고갈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월, 화, 목	수, (목▲)	△피부외과레이저클리닉 △마용외과클리닉	신경과 (☎3860) 만5세이상 진료가능	이영지	*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화)■, 금	△치매조기검진클리닉 △여성성장애 △폐암센터 노인치매클리닉
	산정현	*	아토피부염, 알러지, 습진,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하종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이현숙	*	건선, 여드름, 바캠프, 피부미용외과	(수) 금	수, 금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월, 목	화, 목	뇌졸중클리닉
	일 반			월, 목	월 (화), 목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폐노장애, 불임	화, 금	화	★국제진료센터	재활의학과 (☎2480)	윤창호	*	간질, 수면장애(코골이, 수면무호흡 등)	월, 금	월, 수	수면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월, 수	수			송은철	*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질환, 두통, 뇌졸중	화, 목	월, 금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지기환	*	간질 및 하지불안증후군	금	수, 목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목), 금	화			일 반			수	월, 금	만5세 이상 진료가능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금	월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가정의학과 (☎2240)	정한영	*	뇌졸중(중풍), 뇌혈관질환,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뇌성마비클리닉
	이병익	*	종양학,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김창환	*	근골격계질환(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금	목	★언어장애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화(수)				김영옥	*	척수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	목	월 화 (목), 금	△족부클리닉
	황성욱	*	해외연수(2009. 9 ~)	월 화(수)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여성암센터 외과	박지현	*	주산기외과, 신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암모토시스 △종양스트레스클리닉 △갑상선초음파초진단	국제진료센터(☎2080)	최지호	*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수), 목	화, 수, 금	간진센터파견
	성승미	*	신과, 내시경	목, 금	화, 금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화 (목), 금	△비만센터
	이우영	*	부인과종양	월, 목, 금				일 반		신체검사유학,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제진료센터
	송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성도환	*	일반내과	목		
영상의학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황성욱	*	해외연수(2009. 9 ~)	월, 화, 목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금성, 불성호르몬질환	통증치료실 (☎3921)	최지호	*	일반내과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송준호	*	일반내과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김정용	*	일반내과		수	
	이강연	*	유방, 내분비외과	금				김소현	*	일반내과	화		
소아청소년과 (☎2260)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월), (수)	만5세까지 소아진료	영상의학과 (☎2740)	임미진	*	일반내과	금		
	이영지	*	불안장애		(화)			이두익	*	통증치료	화		
	홍성민	*	갑상선 검사		(화)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손병관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금)	목			이재학	*	통증치료	목	수, 목	
안과 (☎2400)	홍영진	*	심장, 감염	(수), 목, 금	월	항암기생충진료클리닉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원홍	*	HIFU 조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월), 수, 금(토)	월, 목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목	(월), 화, 수			전용선	*	해외연수(2009. 3 ~)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화, 금	월, 수			김우철	*	소아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이프센터
안과레이저(☎2400)	김규성	*	아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수	화, (수), 금	△소아내시경 △금성, 불성호르몬질환	사이버 방사선 종양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월, 화, 목	치료센터 환도 진료
	권영세	*	신경, 간질, 두통	화, 수 (목)	금, 목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이지은	*	해외연수(2009. 8 ~)		목, 금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오종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이비인후과 (☎2420)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아지럼증클리닉 △난청클리닉(3.5) △난청클리닉(4.5)	해의학과(☎3160)	임종한	*	항암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열에	월, 화, 목	화, 목	
	진화성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박신구	*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목	월, 목	
	강성모	*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김환철	*	뇌, 심혈관질환 및 관련, 업무관련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수	수	
	일 반			화,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치과 (☎2470)	김영모	*	두경부종양학,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치과예방진료(3.5) △치과예방진료(4.5)	치과 (☎2470)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김규성	*	아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수(△)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최호석	*	해외연수(2010. 1 ~)					이연화	*	교정과	월, 수, 금	화, 수, 금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송경화	*	보존과	월 화 수, 목	화, 목	
응급의학과(☎2301)	김태연	*	비과, 부비동, 알레르기, 소아비인후과, 편도	월, 수	월	응급의학과, 약물중독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수	
	김경태	*	비과, 부비동, 알레르기, 소아비인후과, 편도	화, 토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